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영적 각성 새벽기도회 및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 OC목사회 등

3050 21인 특별 영적각성 새벽기도회가 오렌지 카운티(OC)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장로협의회, OC여성목사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주관으로 7월 31일(월)부터 8월 23일(수) 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 갈보리선교교회(담임 목사 심상은,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에서 열린다.

심상은 목사는 "이번 기도회는 3050차세대 목회자를 폭넓게 찾아 다음세대의 리더로 한걸음 나설 기회를 함께 마련하는 동시에 기존 교회의 목회자들이 차세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섬김과 협력, 영적 부흥과 존중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귀한 초석이 되고자 마련됐다."면서 "차세대 강사 목사 21인 외 지역 목회자 100여 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는 오는 8월 24일(목) 오전 9시-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2층 천교실에서 3050 목회자 및 부교역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 문의: (714) 722-4805

청년 예배자 연합 수련회 원하트 미니스트리

지난 2014년 창립 이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찬양과 문화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초교파 찬양문화사역단체인 원하트 미니스트리(OneHeart Ministry)가 오는 7월 28 일(금)부터 30 일(일)까지 아주사피사피대학교(901 E. Alosta Ave., Azusa, CA 91702)에서 '청년 예배자 연합 수련회'를 연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예배와 삶을 연결하다'로, 예배 그 자체가 주제가 되어 예배와 예배자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컨퍼런스형 수련회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원하트 미니스트리 홈페이지(www.oneheart-usa.com/)에서 할 수 있다.

참가 등록 비용은 작은 교회(장년 성도 전체 30명 이하) 청년 40달러, 일반교회 청년 120달러이며, 청년 10명 이상 단체 등록할 경우 90달러(식사 및 숙소 포함)이다.

▶ 문의: (213) 347-5080 myoneheartministry@gmail.com



오늘 이 순간부터 좋은 씨로 살자(마태 13, 24-43 (가))

주인이 밭을 다듬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 합니다. 처음 싹이 나고 잎이 날 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순이 점점 자라면서 구별이 돼 갑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도 뿌리를 뺏고 엮히어서 서로 생존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자기 전체를 내걸고 싸우지 않으면 결국 진다는 것보다는 죽음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지에서 지게 된다면 씨의 결실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엔 아무 쓸모가 없고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버리거나 불태워 버리거나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란 바로 우리를 암암리에 해치는 독소입니다. 그러한 독소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엔 중독이 되어 인간의 생명을 조급씩 끊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독소가 유혹을 통해서, 마술이나 뱀을 통해서 우리의 오관을 어지럽혀 무질서하게 만들고 마음을 산란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거나 이것이 옳은 일이나 그른 일이나를 진정한 자세에서 잘 분별하여 행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나쁜 일인데..... 인간이란 본래 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깐 이런 일 정도는 괜찮겠지. 하느님도 별것 아닌 것으로 눈감아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서의 경제적인 살인, 악법이 성행하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삶의 좌절을 안고 있다는 점을 귀로 눈으로 직접 간접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교행자매 여러분! 삶의 희망을 이들에게 안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맞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루가 18,17)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 자기 안에서 비추어 볼 때 바로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악과 타협을 잘 할 뿐 아니라 남이 잘하는 모습을 보고 배가 아파서 파괴하려는 가라지와 같은 마음, 남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 안에 악과 선이 있습니까? 또 착한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선 피와 땀으로 노력한 대가로 지불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에선 미래의 추수까지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 영원한 불 속에 내던져질 것이거나 아니면 간선된 자로 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란 점입니다. 매순간 매순간이 한 인간의 역사의 좌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그 말씀 지당하군' 하면서도 나오는 아무 관련 없는 것으로 해서 안된다는 점입니다. 하느님이 하신 말씀은 내 행동의 좌표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바로 이 순간 가라지가 무성함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허위와 교만, 착취라는 굴레로

그러서 우리는 가라지와 같은 허위와 교만, 질투, 시기, 이간질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자라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좋은 씨앗이 자라도록 하나씩 하나씩 자기 잘못을 고쳐나 가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바로 내 이웃을 통해 이웃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힘이 모자라게 될 경우엔 성령에 매일매일 의탁하십시오. 성령께서 잘 되도록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로마 8,26)

-염수완 신부-

사진=shutterstock



사장님, 링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